

신 문

여성노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노동조건이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보건과 사회' 연구회(회장 김용익)의 '여성노동과 건강'이라는 주제의 월례발표회에서 고경심(신천 연합의원)씨가 이같은 주장을 하였다.

고씨는 기존의 여성노동과 건강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가 작업

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노이로제' 증상을 중년여성이면 당연히 거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하여 여성환자의 증상호소를 수다쫓으로 여기는 등 여성의 건강에 대해 성차별적 편견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조직 내의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에서 결정권이 주로 남성에게 있는 성차별 관행, 의학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적 교과과정 등으로 해서 여성의 특수한 건강

88,

9.14 **근로조건, 남성위주로 돼있다**

보건과 사회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지적

작업환경 · 기계구조 여성신체 고려안해

환경이 나쁘나 좋으나에 대한 노동자의 주관적 판단, 칼로리 총 섭취량, 결근·조퇴·병원 찾는 횟수 등 피상적인 관찰에 머물러, 이 조사자료를 가지고 노동조건과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분석적인 작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작업과정과 기계의 구조가 남성의 신체적 구조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어 여성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입기 쉬우며,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가정주

문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한국의 사회구조와 연관하여 생산직·전문직 노동여성, 도시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농촌여성, 가정주부 등 부문별 특수성에 따른 여성 건강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밖에 산아제한, 출산 등이 의사에 의해 통제됨으로써 생기는 문제 등을 여성의 입장에서 연구, 여성보건에 관한 역사서술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